

통계로 본 유럽자판기 시장 현황

■ 총 보급대수 3,763,612대 ■ 2005년 344,620대 보급

유럽 자판기 시장규모가 과연 얼마나 되나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 일본의 자판기 시장은 성숙기 단계로 본다면 유럽은 한창 자판기 산업이 고속 성장하는 대륙이라 관심이 더하다.

본지가 유럽자판기협회(EVA)를 통해 조사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총보급대수가 3,763,612대, 2005년 한 해 344,620대의 자판기가 보급되었다. 한해 30만대 이상의 제품이 보급될 정도로 유럽자판기 시장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국가별 누계 통계, 이태리가 1위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자판기가 보급된 국가는 이태리이다. 총 보급수량은 653,189대로 2위인 프랑스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프랑스는 625,923대를 기록하며 불과 27,266대 차이로 1위 자리를 이태리에 내주고 있다. 3위는 523,351대가 보급된 영국이다. 4위는 508,000대가 보급된 독일이 차지했다. 유럽시장에 있어 4대 아성인 이들 국가의 총 누계대수는 2,310,463대이다. 총보급대수의 61.4%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5위는 스페인으로 284,363대가 보급이 되어 있다. 6위는 네덜란드로 204,000대가 보급이 되어 있다.

국토 규모와 인구로 볼 때 네덜란드가 전체 유럽의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이다. 작은 국가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자판기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국가별 한해 보급대수

2005년 유럽에서 한 해 보급된 자판기 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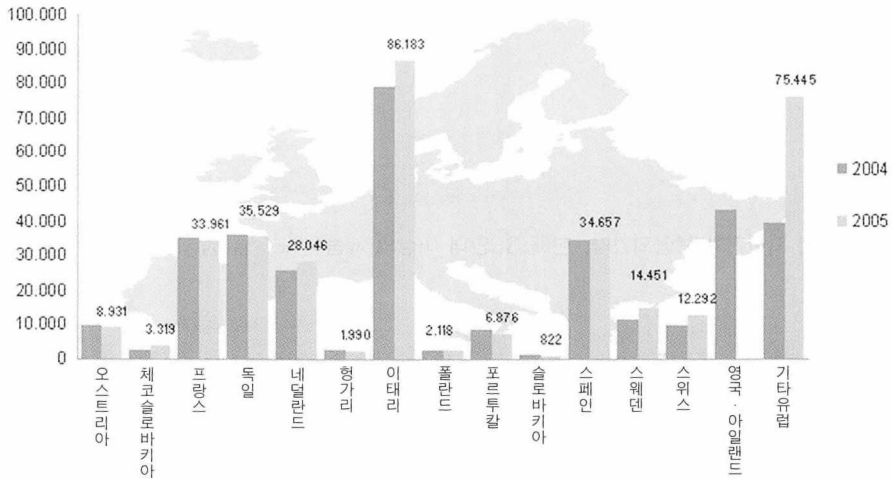
344,620대이다. 아무리 큰 대륙이라 하지만 한해 30만대 이상의 자판기가 보급된다는 사실은 역동적인 유럽 자판기 시장의 현황을 대변하고 있다.

유럽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동유럽자판기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거침없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리가 누계 통계에 이어 한해 보급대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태리가 2005년 한해 보급한 자판기 대수는 86,153대로 거침없는 시장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태리가 이처럼 성장세가 빠른 것은 원두커피자판기를 렌탈 시스템화해서 대량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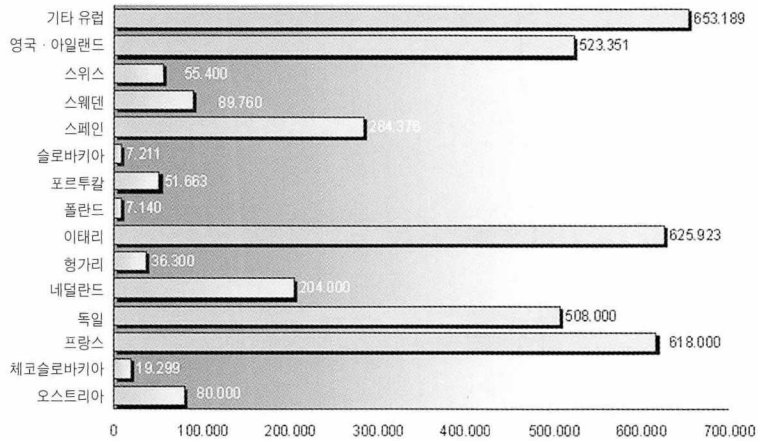
2번째로 많은 자판기가 보급되는 곳은 독일로 35,529대가 보급이 되었다. 3위는 프랑스로 33,961대, 4위는 스페인으로 34,657대 보급이 이루어졌다. 영국의 2005년 한해 통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국가별 한해 보급 대수 냉 & 온음료자판기, 스낵자판기, 식품자판기



2005년 344,620대 보급

국가별 누계 통계 냉 & 온음료자판기, 스낵자판기, 식품자판기



총 보급대수 3,763,612